



『심층 이슈』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서유럽지역의 영화 작품수 증가

출처 : Screendigest (2010/7)

<주요 포인트>

- 12곳의 상위 지역, 100개의 장편영화를 제작, 75% 이상의 전세계 영화작품 차지
- 러시아 전세계 10위 영화 제작국가에서 밀려
-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주요영화작품 생산국 3위로 부상

세계의 주요 작품의 제작 분량이 2009년에 1.9%정도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3회 연속 연간 감소추세로 1년 마다 100개의 작품수가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작품수가 많았던 한해 중에 하나였다. 대략 전세계적으로 영화 제작은 총 5,360개의 영화를 생산하였고, 세계의 영화 제작 부분의 재계약 협약이 한창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고조를 달했다.

현재와 대조적으로 과거를 돌아볼 때, 1998년에 3,372 장편영화를 제작되었고, 세계 영화 제작의 전성기를 이루었었다. 전세계 12곳의 지역에서 100편의 장편영화가 넘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러한 기록은 7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영국에서 2009년에 66개의 모든 지역을 조사한 결과 영국은 10위를 차지하였다. 전체 중 50개의 지역에서 한해에 10편 이상의 흥행영화를 제작하였다.

1) 세계 시장 흐름

서유럽에서 제작된 인기를 끈 장편영화의 제작편수 결과가 총 4%가량 매년마다 증가하였다. 증가를 보인 국가로는 독일,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있고, 미세하게 하락세를 보인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지역에서 영화제작 주도국으로써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서유럽의 영화 공동제작의 양은 410건의 편수가 증대 되었다. 하지만, 전체 제작편수로 볼때는, 2008년에 35.5%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고, 올해에는 34%의 수치가 더욱 감소하였다. 어쩔수없이, 유럽 지역 나라들 사이에서 공동제작의 건수가 두 배 분량 이상이 늘어났다.

올해 1년동안, 동유럽은 7년만에 처음으로 영화 제작편수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러시아 시장의 재정의 문제로 심하게 줄어들었다. 사실상, 101개의 장편영화가 2009년에 촬영이 시작 되었지만, 단지 50개의 영화만이 제작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감소현상이 분발하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의 나라들은 영화제작 편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북아메리카의 제작편수는 2009년에 677개의 편수로 제작양이 감소하였는데 미국영화의 전체 편수제작의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캐나다의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미디어 제작자 협회(CFTPA)가 곧 구조조정을 할 예정에 있다.

미국의 미국영상협회(MPAA)가 만든 자료에 보면 특정 기간 한해 동안 시작했던 모든 영화제목이 수록 되어있다. 연간 자료에 보면, 과거 2005년에는 많은 수의 영화가 제작되었다(약 928편). 2005년과 비교해볼때 현재 250편의 영화 제작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영화제작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된 이유는, 미국 영화의 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파업을 한 것이 영화 제작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북아메리카에서 영화 제작사들이 제작소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중앙아메리카 에서는, 영화 안정적으로 제작이 되었다. 멕시코 지역의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영화제작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

나, 남아메리카의 장편영화 제작물은 최고기록으로 갱신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영화제작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아직까지 세계 금융위기가 이들 지역에 영화제작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의 영화 제작자들은 매년 80편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장편영화를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다. 일본이 영화 제작자가 많은 편인데, 필리핀도 눈에 띄게 제작자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가 필리핀이 디지털 영화의 제작이 많아져서, 예전과 다르게 많은 제작자가 생겨났다. 중앙아시아에는, 숫자상으로 가장 많은 영화감독을 보유한 인도가 과거에 인도의 매이저급의 영화 감독들이 인도 영화관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반복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인도 유명한 영화감독들의 영화가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의 요인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량의 450편이 넘는 영화들이 양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다가, 인도네시아는 1년에 100편이 넘는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이다.

2. 유럽지역

프랑스 (France)

2008년에 프랑스는 240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화 산업은 10곳의 영화 제작사가 줄어들고, 2009년에 전체 하락세를 영화제작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09년에는 기록상 230편의 새로운 장편영화를 제작했고, 30개의 여러 나라의 공동 제작자들과 함께 93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전체 투자는 거의 400m유로에서 1.09bn 유로로 떨어졌다. 거의 모든 영화제작 자본(892m유로)을 프랑스에서 직접 끌어들이었다.

같은 시각, 프랑스 평균 주요 예산(공동제작 포함) 또한 32%가 떨어진 4.7m 유로로 측정되었다. 2002년 이후 가장 최저의 수준으로써, 작년에 기록한 높은 수치였던 6.2m유로에서 떨어졌다. 가장 큰 예산으로 제작되었던 Luc Besson's Adèle Blanc-Sec가 31.3m유로, 11개의 영화가 15m유로 이상 제작비가 소요되어 영화가 제작되었다. 반대로 2009년에 1m유로이하로 제작된 저예산 영화들은 작년에 44편에서 28편으로 제작편수가 줄어들었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프랑스 영화에 대해서 잠재적 시장으로 떠오

르는 중국시장을 포함한 다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프랑스와 2010년에 공식적인 공동 영화제작에 동의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와의 이전에 계약한 이후에 중국이 네 번째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의 제작자들은 중국과 공동 제작을 하게 되면, 공동 제작된 영화가 프랑스 지역에서 소규모 영화로 취급받지 않을뿐더러, 외국영화로써 표준 수입 할당제(Standard Import Quota)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슬랜드(Iceland)

아이슬랜드는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나라이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이 영화산업에 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 2009년에 보고된 안정적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다. 2010년에 지역 영화의 붐을 일으킬 것이다. 아이슬랜드 영화의 최고제작 비용인 7m유로가 투입된 독일, 아일랜드와 공동 제작된 CGI 애니메이션 영화, Thor의 개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연 때문에 국제적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할 것이고, 그로인해서 아이슬랜드 지역 투자자들이 영화 투자자본의 근본적으로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에 Thor은 극장판으로 상영될 예정에 있고, 평균 아이슬랜드 영화 예산안에 기록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2009년에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31달러 하락하였다.

핀란드 (Finland)

2009년에 평균 영화 제작 예산이 1.5m 유로로 측정되었다. 핀란드의 공적기금과 사적기금 합산한 영화산업 규모는 23.5m 정도이다.

핀란드 영화는 작년 2009년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22%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는데, 총 15%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에 집계되었다.

지역 영화의 시장 점유율 하락에 미친 이유 중에 하나는, 헐리우드 3D를 기반으로 한 최근 독과점의 막대한 영향 때문이다. 3D 영화의 전체 입장수가 2009년에 핀란드에서 무려 80만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핀란드의 12%가 넘는 관객비율과 14%의 전체박스오피스의 규모이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영화 제작사는 2009년에 5년만에 첫 연간 제작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작년에 최근 상승세였던 154편에서 하락한 131편의 장편영화 제작물을

기록하였다. 하락세는 이탈리아의 97곳밖에 되지 않는 이탈리아 자체 제작사 규모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다른 공동제작소의 34편의 영화가 사라지는 셈이다.

2009년의 이탈리아의 낮은 수준의 영화제작율은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지원의 약화로 연관이 있다. 전체적으로 공적 자금은 2008년에 21.5%에서 하락한 12.8%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사유부문의 투자 수준이 258유로로 안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투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자체제작 평균 예산은 예상 밖으로 2.25m유로로 상승했고, 그동안에 공동으로 제작되는 영화의 평균예산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년대비 2.46m에서 2.26m 유로로 하락하였다.

이탈리아 박스 오피스에서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엄청난 시장점유율을 높였는데 3%에서 63%로 올랐다. 가장 인기를 얻은 영화는 3D 영화로써 Fox's Ice Age III 이다.

그밖에,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64m 유로)에 힘입어 시실리(Sicily)지역을 주요 영화 제작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Cine Sicilia라는 공동 제작 파트너가 재정지원금을 관리할 예정이고, 작년에 실리아의 이러한 영화 제작 지역 선정의 흐름에 따라서, 영화 제작에 대한 국가 세금공제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폴란드

폴란드는 작년의 40편의 영화에서 2009년에는 48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10년동안 지속적인 영화부문에 재성장 하고있다. 국제 공동제작사는 4곳의 소규모 제작사를 포함한 12곳 정도이다.

비록 국제적 경제 위기가 영화제작에 영향을 주었지만, 2009년에 폴란드의 영화의 흥행율은 최고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31.5m 규모의 입장료로 수익을 얻었다. 개인적인 재정후원의 감소에 따라서, 2010년에 위기의 파급효과는 더 크게 느껴질 전망이다. 게다가, 2009년에 폴란드 공영 방영 관계자(TVP)가 전체 영화의 예산을 27m의 제의된 금액을 5m줄로티를 줄일 것이다. 2009년의 영화 예산이 4.6m줄로티의 안정된 자금상태가 보고되었는데, 2009년에 PISF에 의해서 평균 보조금의 후원에 힘입어 작년에 기록한 2.1m에서 2.6m줄로티로 상향되었다.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제작사로써, 라스본트리에(Lars von Trier) 감독의 Antichrist를 포함한 적어도 폴란드의 2곳의 공동 제작소의 대형 예산 21.5m이 넘는다. 폴란드의 주요 제작소의 파트너들은 독일에서 4곳, 체코 3곳, 그

리고 미국 3곳이다. 국내 최대 영화 제작되는 곳은 11.5m클로티 규모로 포피에로스코(Popielusko)가 있다. PISF에 의해서 90m클로티의 후원금이 투입된 전체 폴란드 영화산업은 몇몇의 폴란드 감독들이 수상을 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영국

영국의 영화 제작은 2003년에 175편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3년동안 안정된 영화제작률을 유지하였다. 2009년에 125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특이하게 71편의 영화가 모두 영국적인 민족적 성향을 띠는 영국영화였다. 전체 투자는 956.9m 파운드으로써, 두 번째로 큰 기록이었고, 프로젝트 당 7.7m 파운드 기준을 초과했다. 2008년에 평균 4.87파운드의 예산으로 59%의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국내 자체의 투자 증가로 거의 두 배가 넘는 752.7m 파운드를 기록하였는데, 몇몇의 주요 제작으로는, 로빈후드(Robin Hood), 크래쉬 오브 더 타이탄 (Clash of the Titans), 해리포터시리즈의 신작 데슬리할로우(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등이 포함되었다. 국내의 투자의 급등과 대조적으로, 한해 18.3%가 급감하였다.

영국은 2008년에 총합계와 같은 숫자로, 작년에 22곳과 공동제작에 협력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106편을 제작한 것과 역사적으로 비교 해볼때, 최근 재개편한 영국영화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세금 절감제도가 요인이었다. 그 예로 특별히,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한 공동제작품인 유령작가(The Ghost Writer)가 있다.

2010년에 영국 영화 산업의 예측은 모든 상황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영국의 영화산업은 새로 정권을 잡은 연합정부(보수당과 자민련)의 가계절감 예산안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영국 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로부터 제작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8년에 1분기 32편에서, 2009년에 27편, 2010년에 23편의 영화 제작이 시행된 것으로 볼때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전체 투자의 규모는 2009년 에 최근에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으나, 공동제작편수가 줄어들고, 영국 국내 투자가 감소하였다.

미국

최근의 미국 작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5.5%으로 약간의 제작 감소가 있었고, 또한 가장 최근의 있었던 금융위기로 2008년에 716편의 영화제작 편수가 재조정되어 추산되었다. 또한, 미국영상협회(MPAA)에 가입된 158곳의 영화사들이 677편의 영화가 올해 말까지 진행중인 영화 제작의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브라질

2009년의 브라질은 'The Sector Fund'라고 불리는 새롭게 재정된 인센티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 지원이 생기면서 낙관적인 한해를 보냈다. 이 제도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자 자본과 영화 제작자가 연결될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는 'The Sector Fund'에서 생겨난 투자 자본이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하여 다른 자본금으로 대체되었다. 브라질 영화 산업에 27.6m달러가 배당되어 산업전체 구성을 이루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영화제작에 13.8m달러, 인디영화와 브라질 지역 프로젝트로 9.2m달러, P&A로 4,6m 달러가 지불되었다.

3. 아시아 지역

중국

현재의 중국은 영화 제작 주도국이 되었다. 2009년에 456편의 영화를 완성하고, 일본을 제치고 인도와 미국 다음으로 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하는 국가로 전세계 3위에 등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대다수의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고 DVD시장으로 바로 진입하는데, 문제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요인은, 현대시설을 갖춘 극장의 부족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현대적인 극장이 현재 약 4,700개 정도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높은 비율의 배급망 정체현상이 중국 영화들의 상영을 막고 있었지만 조금씩 천천히 극장들이 개관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 내의 공동제작과 국제 공동제작 또한 서서히 증가중이다.

중국이 성사시킨 프랑스,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과의 협약이 최근에 영국과 인도 사이의 협정 조율과 연관이 되어있어서, 평균 영화 예산을 증가 시킬 것이다. 게다가, 중국박스오피스의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2009년에

44%의 성장이 907달러에 이르고, 2010년의 추가적 급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분기의 134%의 성장과 작년 같은 기간 3개월 동안 2.92bn 위안(약 429m달러)이 증가되었다.

일본

일본 시장은 새로 448편의 영화가 발매됨으로써, 4년 연속 400편이 넘는 기록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영화 발매편수 하락의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이후에 극장에서 개봉되는 영화의 숫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제작에 제동이 걸린 영화가 증가하였다. 최근의 특별히 경제적 금융위기의 영향과 DVD 산업을 포함한 비디오윈도우(비디오, DVD등)의 하락세가 중소의 일본 제작자들과 판매자들이 2010년부터 총 일본 영화 제작편수에 포함될 것을 기대한다. 유니제팬(Unijapan)에 따르면, 1분기의 영화들이 200곳 이상의 상영관에 널리 발매되어 유통되었다. 그중 대부분인 60편의 영화는 일본의 3곳의 주요 영화사에서 찾아낼수 있었는데, 토호(Toho), 쇼치쿠(Shochiku), 토에이 (Toei) 이었고, 30개의 영화들을 더 중소기업 규모의 유통회사인, 카도와카 (Kadokawa), 아스믹 에이스 엔터테인먼트 (Asmik Ace Entertainment) 이다.

예산에 관해서, 1bn안을 넘는 소수의 영화(애니메이션을 포함)가 있고, 대부분의 지역 영화들은 300m-600m안 정도이다. 나머지 영화들은 모두 100m안 정도 혹은 이하의 예산으로 분류되었다. 또 다른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일본 관객들을 위한 헐리우드 블랙버스터 영화를 리메이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 와인 코미디, sideways의 지역버전이 있다. 게다가, 일본은 공식적인 공동제작작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없는데, 하지만 최근에 캐나다와 제작된 Looking for Anne와 The limits of Control, 이러한 투자들은 스페인과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일본 배우들이 출연한다.

싱가폴

작년에 14편에서 총 16편의 인기물이 2009년에 제작되었는데, 비록 이러한 기록은 15편의 다큐멘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기록이다. 장르에 관계없이 처음에는 3D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영화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는데 규모가 최대 350.000달러, 총 제작비의 최대 80%를 점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여러 가지 중 처음 심의를 통과한 영화는 대규모의 예산을 들인 오

스트리아와 싱가포르가 합작한 Bait 3D 영화인데, 처음 2007년에 영화제목과 우연적으로 공동제작으로 협약을 맺은 영화 제목의 기원이 같다. 같은 제목의 영화는 스크린 오스트리아와 지역적으로 스크린 오스트리아와 스크린 퀸스랜드로 부터의 투자를 끌어 들였다. 이러한 지역에서 3D 제작에 투자 가능한 기회가 두드러졌고, 이 분야의 3D영역 전문가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